

언두 플래닛

Undo Planet

2024.12.3.-
2025.1.26.

December 3, 2024-
January 26, 2025

나나 엘빈 한슨

Nanna Elvin Hansen

낸시 홀트

Nancy Holt

댄 리

Dan Lie

데인 미첼

Dane Mitchell

로버트 스미스슨

Robert Smithson

사이드 코어

SIDE CORE

시마부쿠

Shimabuku

시몽 부드뱅

Simon Boudvin

실라스 이노우에

Silas Inoue

안 보

Danh Vo

양혜규

Haegue Yang

이끼바위쿠르르

ikkibawiKrrrr

임동식

Rim Dongsik

타렉 아투이

Tarek Atoui

팡록 술랍

Pangrok Sulap

하셀 알 람키

Hashel Al Lamki

홍영인

Young In Hong



A



Undo Planet
Memory (Im) Material Flow

SJ

C

《언두 플래닛》은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문제를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재고찰하는 전시입니다. ‘언두 (Undo)’는 ‘원상태로 하다’로 정의되지만, ‘열다’, ‘풀다’의 의미도 보유하고 있듯이 본 전시는 예술을 매개로 지구라는 행성의 기억과 앞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미래의 공동체가 기억하게 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새롭게 도래할 생태계의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언두 플래닛》은 2023년부터 강원도 철원군에서 진행한 장소특정적 연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양혜규, 덴 리, 타렉 아투이, 홍영인 그리고 이끼바위쿠르르는 각각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실, 철원석담짚풀전수회, 철원 소재 어린이 합창단 ‘평화를 부르는 아이들’, DMZ두루미평화타운 그리고 양지리마을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리서치 및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장연구를 진행한 작가 5인/팀을 포함하여 총 17명/팀의 작가를 ‘커뮤니티 (Community)’, ‘비인간 (Non-human)’, ‘대지 미술 (Land Art)’ 3개의 주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와 협업하며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2월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진 덴 리는 전시 내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썩거나 새싹이 돋고, 모양과 색을 바꾸며 진화하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구현했는데, 이 과정을 준비하며 제작한 드로잉을 이번 전시에서 소개합니다. 철원의 어린이들과 소리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탐구한 타렉 아투이는 워크숍을 영상 기록을 통해 공유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로 구성된 콜렉티브 팡룩 솔랍은 태국 어촌 공동체와 함께 생태문화를 탐구하고 생활을 담은 판화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전달합니다.

‘비인간’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상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같이 인간이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을 다룬 작업들을 소개합니다. 양혜규는 ‘봉희’라는 꿀벌을 주인공으로 분단과 냉전, 긴장과 충돌로 점철된 인간 세계를 돌아보는 새로운 영상작업 〈황색 춤〉(기초 연구)(2024)와 이질적인 재료와 외관을 가진 두 종류의 양봉용 기성품 벌통에서 출발한 신작 조각

두 점을 선보입니다. 홍영인은 겨울에 철원으로 날아오는 두루미를 탐조한 뒤, 두루미 가족을 위한 신발을 왕골로 제작했으며, 시몽 부드뱅은 유럽 도시 곳곳에 출몰한 붉은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은 영상을, 이끼바위쿠르르는 풀피리 연주를 담은 영상과 그래피티 작업을 통해 랩소디를 통해 동식물과 같은 비인간을 조명합니다. 나나 엘빈 핸슨은 군사의 수단으로 땅을 지도화하고 분류하는 인공위성 이미지에서 출발해 이미지 제작 기술을 위한 광물 채굴과 관련된 논의를 끌어내는 한편, 실라스 이노우에는 미생물이 번식하는 소형 생태계를 조성한 작품을 공개합니다.

나아가 1970-80년대 생태와 환경에 대한 미학적, 과학적, 참여적 도전을 수행했던 작가들의 활동을 작품과 자료를 통해 살펴봅니다. '대지 미술'을 선구하는 로버트 스미스슨과 낸시 홀트의 작업을 영상 기록으로 되짚어봅니다. 로버트 스미스슨의 〈나선형 방파제 (필름)〉(1970)과 낸시 홀트의 〈태양 터널 (필름)〉(1978)이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며, 한국 자연미술의 토대를 개척한 임동식의 회화와 퍼포먼스 기록 사진, 드로잉 등의 아카이브 자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 개입을 시도한 과정을 기록한 시마부쿠의 사진 작업과 2024년 1월 일본 노토 반도에 발생한 지진으로 해저지형이 야기한 새들의 생태 변화를 은유하는 퍼포먼스 기록 영상으로 담은 사이드 코어의 작업이 소개됩니다. 오랜 기간 향을 재료로 다뤄온 데인 미첼은 향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향유고래의 배설물인 용연향을 통해 스멜스케이프(smellscape, 냄새 풍경)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자연의 풍경을 버려진 천 위에 담은 하셀 알람키의 작업은 '대지 미술'의 담론을 계승 및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보는 아버지의 손에서 탄생한 필사본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언두 플래닛》은 그동안 아트선재센터에서 진행해 온 여러 다른 전시 및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트선재센터는 2021년 결성된 '월드웨더네트워크'라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위기에 관심 있는 예술기관 연합의

멤버로서 《문경원 & 전준호: 서울 웨더 스테이션》(2022)과 《월드웨더네트워크》(2022)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시작된 장기 프로젝트인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는 아트선재센터와 협력하여 DMZ를 둘러싼 다각적 연구와 예술적 실천을 진행해왔습니다. 《언두 플래닛》은 긴 시간의 고민을 하나의 전시로서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전시입니다. 아트선재센터는 앞으로도 기후 환경의 문제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작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경험하고, 만들고, 제안하며, 이를 관객들과 공유하는 전시와 프로젝트로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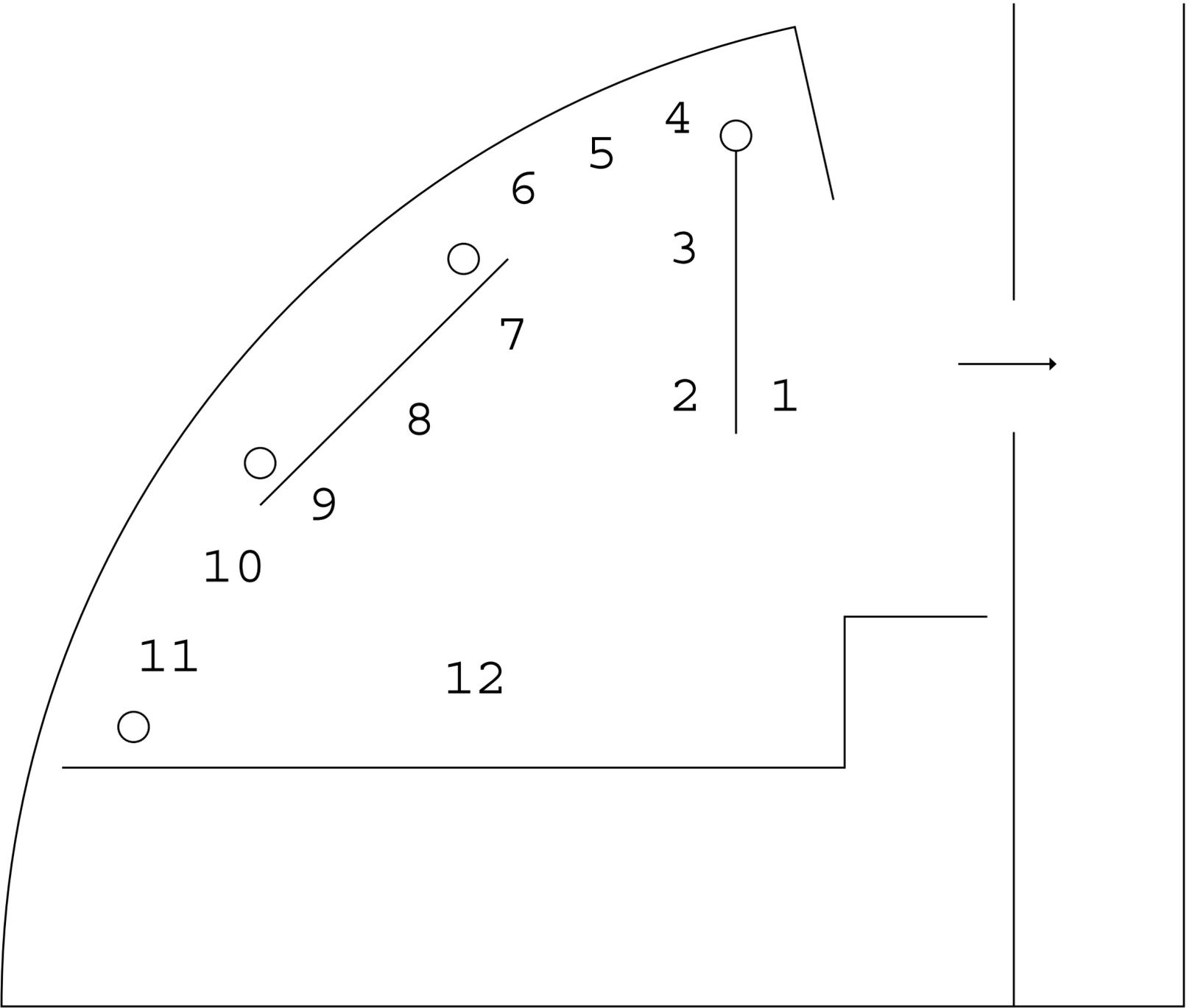
A



Undo Planet
Memory (Im) Material Flow

SJ

C



덴 리 (b. 1988)

1 <익명의 개체들 1>, 2021, 종이에 목탄, 소프트 파스텔, 수채화, 76×56cm

브라질에서 태어나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하는 덴 리는 이주와 귀어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덴 리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상호 의존적인 교류와 자연스러운 변화의 주기를 찬미하며, 인간과 인간의 주체성을 탈중심화 하고자 합니다.

<익명의 개체들 1> (2021)은 2022년 뉴뮤지엄에서 개최된 동명의 개인전과 2024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덴 리: 상실의 서른 여섯 달》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덴 리 작업의 핵심은 미술관의 화이트 큐브를

유기체가 탄생, 증식, 죽음으로 순환되는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가는 박테리아, 균류, 식물, 동물, 미네랄, 영혼, 조상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과 협력하며 전시 환경, 온도, 설치된 요소의 생물학적 구성에 따라 반응하고 변화하는 특정한 생태계를 창조합니다. 두 전시를 위해 작가는 테라코타 세라믹 화병과 옹기, 황마, 삼베, 짚풀, 건초, 포자와 씨앗이 포함된 진흙, 그리고 수천 송이의 꽃을 활용하여 전시 내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썩거나 새싹이 돋고, 모양과 색을 바꾸며 진화하고 변형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덴 리는 이 과정을 영화 포스터의 미학에 영감을 받은 5개의 드로잉으로 남겼습니다.

시몽 부드뱅 (b. 1979)

2 <브뤼셀 붉은여우>, 2024, 싱글채널 비디오, 15분. 지원: 대안공간 루프(서울), Fondation des Artistes(파리), Fondation Thalie(브뤼셀).

스스로를 스튜디오 예술가가 아니라 아웃도어 예술가라고 특징 짓는 시몽 부드뱅의 작업은 건축가, 그래픽 디자이너,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협업으로 전개됩니다. 작가는 리서치와 서사를 결합시킨 자신의 독창적인 다큐멘터리 방법론에 사진, 글, 조각을 사용하여 자신이 탐구한 것에서 얻어진 조각난 나무, 여러 개의 사다리, 해체된 자동차, 오래된 석유 탱크와 같은 낱것의 재료를 보여주는 것에 흥미를 갖습니다.

<브뤼셀 붉은여우> (2024)는 브뤼셀 도시에 사는 여우들을 기록한 비디오 슬라이드쇼 프로젝트입니다. 한때 유럽 내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붉은여우는 사냥을 덜 당하는 지역으로 점점 이동하기 시작했고, 여우의 도시 출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영상은 주인이 집을 비운 동안 정원에서 낮잠을 자고, 개가 없는 밤에 공원에서 놀고, 고양이를 위해 마련된 밥을 먹으며 쓰레기 수거 날을 기다리는 여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여우의 활동 경로, 여우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은 브뤼셀 시민의 모습을 담은 사진,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텍스트가 펼쳐집니다. 이 영상은 서로 다른 종이 공존하며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 새로운 도시의 혼성적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임동식 (b. 1945)

- 3 임동식, 『열린 하늘 아래 그린 그림들』 리플렛, 1987, 종이에 흑백 인쇄
- 4 『야투자연미술집』, 1980-1987
- 5 〈거북이와 함께한 풀밭 산책〉, 2021-2023, 캔버스에 유화, 105×149cm
- 6 1980-1990년 사진 기록
- 7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 2005, 캔버스에 유화, 182×227cm
- 8 1980-1990년 드로잉 및 사진 기록
- 9 〈자연 속 드로잉〉, 1990년대 중반 원골 마을 시절, 종이에 연필, 47×82.2cm

임동식은 1980년 ‘야투 야외현장미술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하며 자연 공간에서 기존 미술 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야외 미술을 추구했습니다. 작가는 이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한국의 자연미술을 해외로 소개하며 한국 자연미술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1989년 귀국하여 공주 원골 마을에 자리잡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상적 삶에서 행하는 미술 행위의 실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2005)는 작가가 작업실 주변에 가꾼 수선화밭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림 한 칸에 등장하는 작가는 자연의 한없는 경이로움에 대한 예찬과 동경을 표하며 자신을 낮추고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는 붓으로 점을 찍듯이 덧칠하여 공간감을 표현한

그의 화법이 수선화 받을 온기 있고 은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1980-90년대 독일과 한국의 대자연 속에서 행했던 퍼포먼스 및 작업 현장 기록 사진, 아이디어 스케치, 드로잉, 전시 자료 등을 함께 선보입니다. 실험미술을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한 임동식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나 엘빈 헨슨 (b. 1989)

10 <그라운딩스>, 2024, HD, 스테레오, 43분

나나 엘빈 헨슨의 작업은 예술과 행동주의 사이에서 교차되는 실천을 보여줍니다. 현장 진행과 협업 과정을 통해 오디오 및 영상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작가의 작업은 생태계 파괴와 이주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폭력을 드러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이미지 제작 기술을 위한 광물 채굴과 땅 밑의 정치화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작가의 이러한 연구는 채굴과 군사의 수단으로 땅을 지도화하고 분류하는 원격 감지 기술이기도 한 인공위성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라운딩스> (2024)는 새로운 원격 탐사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인 규암의 추출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 조사는 노르웨이 북부 사프미 (Sápmi) 지역에 위치한 기에마쉬 (Giemáš) 산 규암 채석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지구의 원자재와 땅을 통제하는 인공 구조물에 대한 질문을 파고듭니다. 헨슨은 전 세계적으로 통제되는 자원 추출과 이와 관련된 지역 생태계, 원주민 인구, 경제적 이익, 그리고 초국가적 (위성) 감시 산업의 문제를 아우르는 물질적 단면도를 만들어냅니다. 규암은 이 광물이 어떻게 지정학적 착취를 증언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 때, 법의학적이면서도 시적인 여정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타렉 아투이 (b. 1980)

11 타렉 아투이, 〈더 하이브—워크숍〉 기록, 2023

사운드 퍼포머, 음악가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하는 타렉 아투이는 세계 여러 전통악기 및 음악사 탐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전자악기를 통해 소리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해체합니다. 최근에는 고대원소인 물, 불, 흙(땅), 공기(바람)의 변화와 순환의 개념을 담은 다양한 악기 제작과 연주법을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있으며, 작품과 연계하여 다양한 협업을 통해 콘서트, 즉흥 퍼포먼스, 워크숍 등을 직접 기획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겨울 아투이는 타악기를 사용하여 진동과 공명의 개념을 소개하는 워크숍 '더 하이브'를 철원 지역 초중생들로 구성된 공연봉사 집단 '평화를 부르는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물건들의 소리에 집중하길 제안하며, 소리와 음향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물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타악기를 긁거나 문지르는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은 눈, 손가락 등 모든 감각 기관으로부터 소리가 인식될 수 있음을 배우며 창의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들로 악기를 연주했고, 이를 워크숍 기록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팡록 술랍

12 〈생명의 강 (언덕에서, 습지에서, 강으로)〉,
2023, 천에 오프셋 잉크, 목판화, 각
152.40×274.32cm

팡록 술랍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사바 출신의 예술가들로 구성된 콜렉티브입니다. '팡록'은 '핑크 록'을 의미하고 '술랍'은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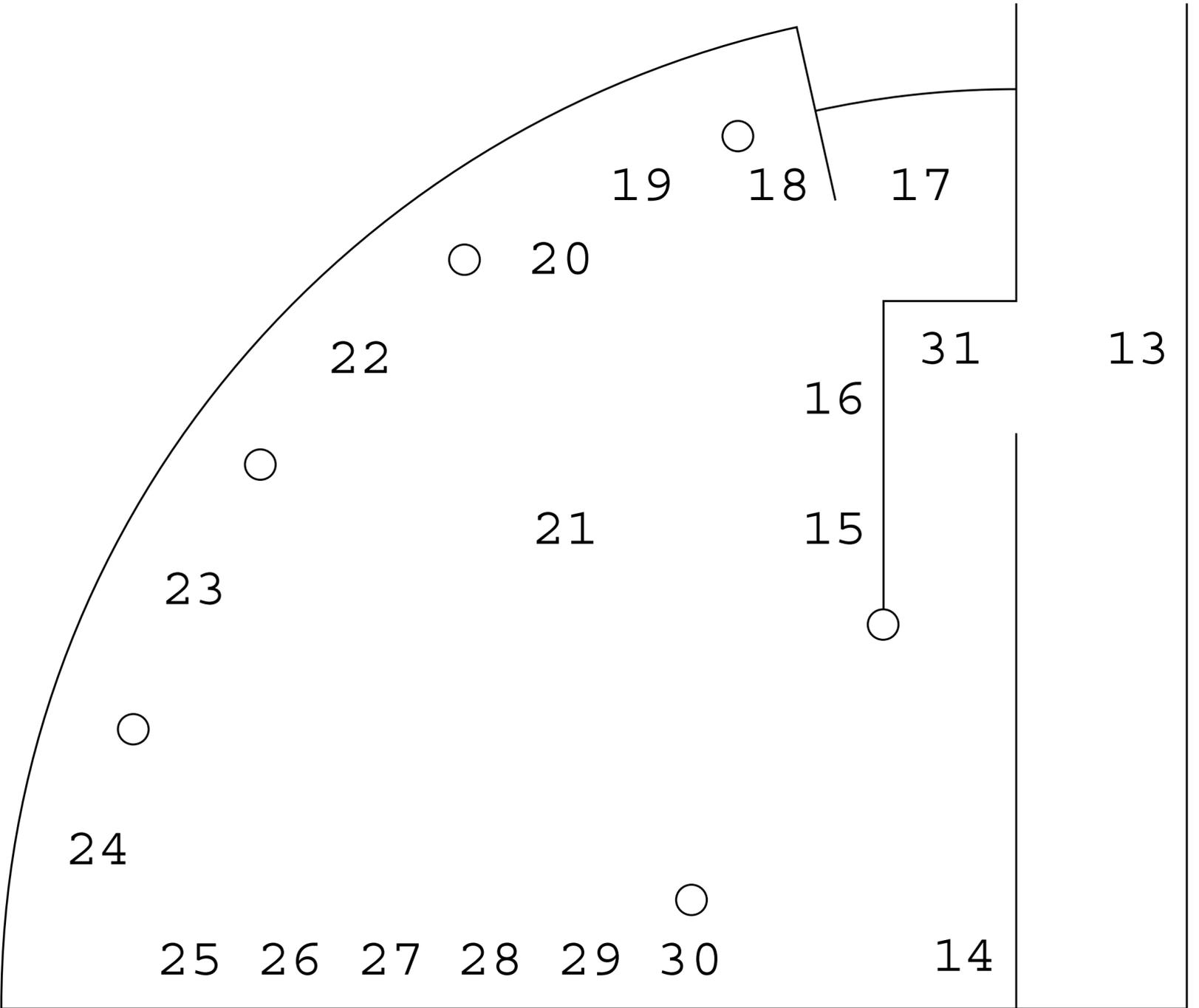
Undo Planet
Memory (Im) Material Flow

SJ

C

사바의 농부들이 쉬는 오두막을 뜻합니다. 팡록 술랍은 큐레이터, 작가, 연구자, 활동가, 음악가, 그래픽 디자이너, 수공예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예술을 통해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려는 사명에서 나아가, 다양한 커뮤니티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발전을 위한 전시, 프로젝트, 협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 (언덕에서, 습지에서, 강으로)〉 (2023) 는 팡록 술랍이 태국 치앙라이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메콩강, 잉 강 그리고 쿡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어촌 공동체와 함께 생태문화를 탐구하고, 매라오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3점의 대형 목판화는 예술가와 강변 공동체 간의 공동 탐구의 결과입니다. 이 작업은 강이 단순히 삶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함을 드러냅니다. 더불어 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이들 공동체의 삶은 팡록 술랍에게 지역 환경에 대한 지식과 공동체 정신을 결합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팡록 술랍은 다양한 생물, 전통 그리고 여러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직면한 생태적 위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데인 미첼 (b. 1976)

13 <용연향 (포획과 분산)>, 2024, HVAD 삼각대, 아로마 디퓨저, 합성 용연향, 용연향, 유리, SPME 고체상미량추출기 조립, 금관, 가변크기

데인 미첼은 박물관이나 백과사전 같은 구조와, 이를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증기, 향기, 사라짐과 같은 힘을 살펴보면서 억제하는 것과 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긴장을 탐구합니다. 그는 물질 포착 및 확산 기술, 향, 약재, 유리, 먼지 같은 재료를 다룬다. 미첼은 15년 넘게 향기 분자를 가지고 작업해왔습니다.

용연향은 향유고래의 소화 기관에서 생성되어 결국 바다로 배출되는 희귀한 물질로, 수 세기 동안 향수 업계에서 찾는 매우

귀한 재료입니다. 〈용연향 (포획과 분산)〉 (2024)은 에어컨 공조기 설치에 사용되곤 하는 공조 리프트 두 대를 사용해 두 종류의 용연향을 분산시킵니다. 리프트 중 하나는 순수한 용연향을 담고 있는 한편, 다른 리프트는 산업용 분무기를 고정하여 실험실에서 용연향을 복제한 합성 향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오늘날 향유고래가 산업 오염 물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용연향 역시 더 이상 천연의 성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인공과 자연으로 분리하기 점점 불가능해지는 후기 자본주의의 산물임을 드러냅니다.

사이드 코어

14 〈새로운 땅〉, 2024,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6분 7초

다카스 사키에, 마츠시타 도루, 니시히로 다이시로 구성된 사이드 코어는 2012년에 결성된 콜렉티브입니다. 스트리트 문화의 관점을 통해 공공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이드 코어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틈새에 개입하며, 표현과 행동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실내외를 아우르며 도시 공간에서 표현을 확장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는 지진으로 인해 해안선이 크게 융기하여 일부 바다가 육지로 변했고, 이로 인해 바다에서 먹이를 찾던 새들이 먹이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이드 코어는 이 새들을 피리로 부른 뒤, 먹이를 주는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새가 먹고, 배설하여 새로운 균을 번식시키고 식물이 자라는 순환을 드러냄으로써 이 퍼포먼스는 인간이 개입한 풍경과 사람과의 연결성을 표현합니다. 영상 속 하얀 표면의 바위에는 작은 식물이 싹트고 있는데, 한 때 바다 속에 잠겨 있던 바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곧 이 지역이 경험한 지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나게 합니다.

A



Undo Planet
Memory (Im) Material Flow

SJ

C

양혜규 (b. 1971)

- 15 <등대별 이중 맨션>, 2024, EPP 벌통, 알루미늄
그물망, 스프레이 페인트, 금속 걸쇠, 금속 부품,
색종이, LED 조명, 전선, XPS 폼보드, 훈연기,
158×72×87cm
- 16 <가마별 신당>, 2024, 전나무 벌통, 삼나무, 우드
스테인, 아크릴 물감, 훈연기, LED 초, 한지,
알루미늄 부속품, 가죽 끈, 자석, 163×93×136cm
- 17 <황색 춤> (기초 연구), 2024,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6분 31초, 가변크기. 이 영상 작업은
자이언트스텝의 기술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음악: 윤이상,
오보에 독주곡 <피리>, 1971. 녹음: 하인츠 홀리거
1977년 9월 17일, © 국제윤이상협회 2005, CD
IYG 004. 악보: 보테안복/ 부지앤혹스, 베를린
(2025 신판). 영상 작품 출처: 김범, <“노란비명”
그리기>, 2012, 싱글채널 비디오, 31분 6초.

콜라주부터 수행적 조각, 전시 공간을 감각적 장치로 가득 채우는
설치 작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매체를 아우르는 양혜규의 작업은
서로 다른 다수의 역사와 전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다양한
공예 기술과 재료는 물론, 빨래 건조대, 베니션 블라인드, 한지,
인조 짚 등의 사물을 둘러싼 문화적 함의를 참조합니다.

2023년 초부터 양혜규는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실과 함께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보전 문제에 대두되는 꿀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가는 '봉희'라는 꿀벌을 주인공으로
분단과 냉전, 긴장과 충돌로 점철된 인간 세계를 돌아보는 영상작업
<황색 춤> (기초 연구) (2024)와 이질적인 재료와 외관을
가진 두 종류의 양봉용 기성품 벌통에서 출발한 신작 조각 두
점을 제작했습니다. <황색 춤> (기초 연구)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생화학 무기의 사용을 두고 벌였던 일명 '황색비' 논쟁의 곡해와
왜곡에 주목하면서 봉희를 화자로 현 상황을 고발합니다. 공통적으로
벌이 부재한 벌통 안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마별

신당〉(2024)과 〈등대별 이중 맨션〉(2024)을 통해 작가는
미니어처의 구현으로 관람객을 인간적 척도로부터 ‘비인간’적 세계에
보다 몰입하게끔 이끕니다.

하셀 알 람키 (b. 1986)

18 〈오르팔레스〉, 2024, 직물에 자연 원료와 오일,
가변크기

하셀 알 람키의 예술은 인간과 그들이 사는 자연 및 인공
서식지 사이의 관계를 풀어냅니다. 회화, 조각, 영상, 사운드
작업을 통해 작가는 서로 다른 정체성과 풍경이 혼합되는 공간을
탐구합니다. 알 람키는 세계화의 거대한 구조 안에서 인간의
경험과 가속화된 산업화가 어떻게 기존 공간을 빠르게 변화시켜
우리의 현실과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하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오르팔레스〉(2024)는 여러 겹의 섬유에 전통
회화, 바틱 염색, 조각을 결합하여 제작한 장소 특정적 설치미술
작품입니다. 이 작업은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 발생하는
건조한 모래 열풍인 시뭴(Simoom)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 된 직물을 작가가 탐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장에
내려오는 이 작업은 전통적인 베두인 텐트, 특히 사막 유목민에게
필수적인 염소 털로 만든 텐트에서 영향을 받은 산업용 텐트
원단을 사용합니다. 소형 직물은 가정용 걸레, 호텔 냅킨, 면
베갯잇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직물은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구한 다양한 천연 염료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염색한
것입니다. 〈오르팔레스〉는 걸프 지역의 급속한 현대화와 산업화가
물리적 환경과 사회의 문화적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상상하게
합니다.

실라스 이노우에 (b. 1981)

- 19 <인프라스트럭처>, 2024,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나무 (오크, 마호가니, 월넛, 태운 더글라스 전나무), 토양, 곰팡이, 청동, 필터, 60×40×125cm
- 20 <인프라스트럭처>, 2024,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라디언트 아크릴, 나무 (오크, 마호가니, 월넛, 태운 더글라스 전나무), 토양, 곰팡이, 청동, 필터, 80×40×80cm

실라스 이노우에의 작업은 자연과 자연 과학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과 덴마크와 일본 혼혈 배경과 관련하여 스스로 묘사하는 '유사 아시아적 (Quasi-Asian)' 스타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전통적인 재료 외에도 설탕, 식용유, 곰팡이 등 비관습적인 재료와 다른 생물들을 사용합니다. 이노우에는 다양한 생명체의 분포 방식에 관심을 가지며, 소비/형성, 생태적/경제적 성장, 그리고 생물 종과 행성 사이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2018-) 연작은 대도시 인구 증가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도시 풍경과 유사한 작품의 내부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수백 종의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완벽히 밀폐되도록 투명 아크릴 통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균사체 섬유들은 마치 소유주의 개체처럼 수백만 개의 곰팡이 포자를 생성합니다. 탱크의 내부와 상단에는 청동 순환 시스템이 놓여 있어, 필터를 통해 유기체들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한편, 포자와 마이코톡신이 외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언두 플래닛》에서 선보이는 작품을 위해 작가는 DMZ 부근에서 내부 구성을 위한 재료를 채집하여 새로운 환경을 실험합니다.

홍영인 (b. 1972)

21 <학의 눈발>, 2024, 왕골, 자연염색한 왕골, 스테인리스 스틸, 두루미를 위한 여덟 쌍의 신발 설치, 가변크기. 협업제작: 짚풀공예 명인, 이충경.

홍영인은 브리스톨에서 거주 및 활동하며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자수, 드로잉 등 여러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입니다. 저평가된 문화적 관행에 초점을 두고 지배적 위계를 부드럽게 약화시키는 평등 감각을 추구하는 작가는 최근 인간 외의 목소리라는 맥락에서 종 간 소통, 상징주의, 그리고 소리, 움직임, 사물의 혼성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학의 눈발> (2024)은 2023년 겨울, 홍영인이 비무장지대 (DMZ)로 날아오는 두루미들을 관찰한 리서치 여행 후 제작한 작품으로, 여덟 쌍의 두루미 신발이 하얀 모래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진 신발은 인간 세계를 유머러스하게 모방하며 그것을 신고 있는 두루미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작가는 눈 덮인 평화로운 들판에서 관찰한 두루미를 의인화하여 익명의 '두루미' 집단이 아닌,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한때 긴장으로 가득했던 DMZ는 이제 두루미들에게 생태학적 낙원이 되었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종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끼바위쿠르르

22 <랩소디>, 2024, 영상: 2 채널 비디오, 4K, 컬러, 사운드, 7분 19초, 4분 32초 루프 / 그라피티: 식물, 한지 위에 아크릴, 150x210cm 3점.

A



Undo Planet
Memory (Im) Material Flow

SJ

C

시각 연구 밴드 이끼바위쿠르르는 식물, 자연현상, 인류, 생태학과의 연계를 탐구합니다. '이끼바위'는 이끼가 덮인 바위를 의미하며, '쿠르르'는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이끼는 대기와 흙의 경계층에서 작은 몸으로 적응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그 세계를 확장합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끼가 살아가는 방식을 자신들의 프로젝트와 태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주'라는 큰 개념에서 출발하는 이들의 실천은 인간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넘어, 식물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 구성원 모두의 시간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DMZ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곳인 동시에 식물들의 자생이 가능한 역설로 잠식된 공간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공간, 일종의 어떤 '틈'과 같습니다. 긴장의 공간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식물은 허용된 침입자로, 영상 〈랩소디〉(2024)에는 지속된 냉전을 상징하는 포탄소리, 기억할 수 없지만 북한으로 보내질 나무들, 금지된 장소와 식물, 풀피리를 부는 사람 등이 담겨있습니다. 풍경들 사이에 들리는 포탄소리는 실제로 DMZ부근의 부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함께 전시되는 3점의 그라피티 작업은 민통선 내에 침입하고 있는 식물들을 수집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DMZ의 '금지'들을 넘는 식물들에 주목하고 여전히 연결을 꿈꾸는 식물들의 랩소디를 상상합니다.

로버트 스미스슨 (b. 1938, d. 1973)

23 〈나선형 방파제 (필름)〉, 1970, 16mm 필름을
변환한 영상, 35분

로버트 스미스슨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1938년에 태어나 1973년에 세상을 떠난 스미스슨은 대지 미술로 알려진 예술 형식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신의 글과 프로젝트를 통해 조각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작업 중에는 유타주의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에

위치한 대지 미술의 기념비적인 작품 〈나선형 방파제〉(1970)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켄트주립대학에 위치한 〈부분적으로 덮인 오두막〉(1970)이 있습니다. 스미스슨의 비평글 역시 현대 미술과 이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화 〈나선형 방파제〉(1970)는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의 로젤 포인트에 위치한 스미스슨의 거대한 대지 미술 작품 〈나선형 방파제〉의 '초상'으로, 1970년 4월에 완성된 상징적인 대지 미술 작품인 〈나선형 방파제〉를 담고 있습니다. 길이 457미터, 폭 4.6미터에 달하며 현무암, 진흙, 소금 결정으로 이루어진 나선형의 작품은 해안에서 튀어나와 선명한 붉은빛이 도는 물을 향해 극적으로 휘감으며 들어갑니다. 이 영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물 속에 사라졌다 다시 드러나며 거의 신화적인 위상을 얻은 이 대지 미술 작품의 제작 과정을 기록합니다.

낸시 홀트 (b. 1938, d. 2014)

24 〈태양 터널 (필름)〉, 1978, 16mm 필름을 변환한 영상, 컬러, 사운드, 26분 31초

대지 미술과 공공 미술에서 혁신을 이끈 낸시 홀트는 조각, 설치, 영화, 비디오, 사진으로도 30년 넘게 작업했습니다. 홀트는 유타주 그레이트베이슨의 〈태양 터널〉(1973-1976)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다크 스타 파크〉(1979-1984)를 포함한 대규모 환경 조각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홀트는 로버트 스미스슨과의 협업을 포함하여 실험적인 영화와 비디오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홀트의 초기 무빙 이미지 작업은 관점과 과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지각과 기억을 탐구합니다.

〈태양 터널 (필름)〉(1978)은 유타 사막 북서부에서 진행된 홀트의 대표적인 장소특정적 조각 작업을 기록합니다.

1976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길이 약 2.4m, 직경 약 2.7m의 콘크리트 관 또는 '터널'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들은 하지와 동지 때의 일출과 일몰에 맞추어 배치되었으며, 별자리 모양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태양 터널 (필름)>은 태양의 연간 주기와 일일 주기를 담아내며, 광활한 사막 풍경 속에서 인간적 척도와 시각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 영상 기록물에는 하지와 동지 때 변화하는 태양과 빛이 터널을 통해 보이는 놀라운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마부쿠 (b. 1969)

- 25 시마부쿠, <랜드 아트 슬라이드 쇼>, 2019-2024, 6분 28초
 - 26 시마부쿠, <세우기>, 2017, 5분 53초
 - 27 <눈사람 신혼여행>, 2023,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70×105cm
 - 28 <하얀 길>, 2019,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70×105cm
 - 29 <목걸이: 산으로 돌 옮기기>, 2021,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70×105cm
 - 30 <세우기>, 2017,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70×105cm
-

1990년대 초반부터 시마부쿠는 일본과 해외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한 장소 특정적 작업을 선보여 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관련이 있는 퍼포먼스, 영화, 조각, 설치 작업을 하며, 때로는 생명체와 인간의 관계로까지 주제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시적 감성과 유머로 가득 차 있는 시마부쿠는 은유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시마부쿠의 사진 시리즈, 영상 작업 그리고 슬라이드 쇼는 자연에 대한 작가의 시적인 개입을 포착합니다.

<세우기> (2017)에서 작가는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해변의 나무와 돌을 똑바로 세우는 작업을 펼쳐 참가자들에게 명상적인 행위를 공유합니다. <목걸이: 산으로

돌 옮기기〉(2021)는 오키나와, 세토우치, 홋카이도의 돌을
기온산으로 옮기며 산정상에 원형의 형태를 구현한 뒤, 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돌을 놓도록 안내해 영원히 지속되는 작업으로
만듭니다. 한편, 〈하얀 길〉(2019)은 작가가 흰 돌을 사용해
긴카산을 따라 바다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작업입니다.

얀 보 (b. 1975)

31 〈02.02.1861〉, 2009-, 종이에 잉크, 풍
보의 서체, 29.7×21cm

얀 보는 집단의 역사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는 분리할 수 없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레디메이드에 근거한 사물을 전시하는 것은
작가의 특징적인 예술적 전략으로, 개인과 집단 문화의 승화된
욕망과 슬픔을 간직한 상징으로 가득찬 이 사물을 통해 그는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를 살피도록 만듭니다.

〈02.02.1861〉(2024)은 순교 성인 장
테오판 베나르 (St. Jean Théophane Vénard)가
참수당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작성한 마지막 편지를 얀 보의
아버지 풍 보가 필사한 것입니다. 베나르는 개종전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으며, 이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화 이전에 발생한 수많은 기독교 박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침착하게 죽음을 기다리며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기는
편지를 필사한 이 작업은 베트남의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160년의 격차가 나는 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증언합니다.

연계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 양혜규

2024.12.7. (토) 16:00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온라인 강연

사유의 퇴적 : 대지 프로젝트

리사 르 피브리 (홀트/스미스슨 재단 디렉터)

2025.1.16. (목) 19:00

A



Undo Planet
Memory (Im) Material Flow

SJ

C

언두 플래닛

2024.12.3.-2025.1.26.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스페이스1

주최

아트선재센터,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덴마크 문화부, 주한덴마크대사관

협찬

자이언트스텝

협력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실, 오버가든, 철원문화재단

기획

김선정, 김지나, 김장언, 최수영

진행보조

이예인, 장유진, 최서영

그래픽 디자인

신신

A



Undo Planet
Memory (Im) Material Flow

SJ

C

관람 안내

관람 시간

12:00-19: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10,000원 (25세-64세)

7,000원 (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5,000원 (9세-18세)

무료 (그 외 연령, 장애인, ICOM·CIMAM·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 2024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 733 8949

f. 02 733 8377

w. www.artsonje.org

A



Undo Planet
Memory (Im) Material Flow

SJ

C